

선사시대 석재 사용의 변화와 특징 -대전분지 지역을 중심으로-*

이기성**

- I. 머리말
- II. 석재 사용의 변화
- III. 대전분지 선사시대 유적 현황
- IV. 대전분지 선사시대 석기 석재 사용의 변화와 특징
- V. 맺음말

【국문초록】

선사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석재가 석기 제작에 사용되었다. 석재는 무작위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석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성질, 채집의 용이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구분되어 사용되었을 것이며, 그러한 특징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타제석기의 석재와 마제석기의 석재 차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석기 제작 기법의 차이와 함께 시대에 따라 사용되는 석재가 변한다고 이해되지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석재 사용 양상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본고에서는 대전분지 지역을 대상으로 구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까지의 유적 출토 석기 석재를 검토하여, 석재 사용의 특징과 시대별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대전분지의 구석기시대에는 석영과 혼펠스가 주로 사용되지만, 신석기시대가 되면 혼펠스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대신 신석기시대에 들어와 타제석부와 타제찰절구같은 판상형 석기가 제작·사용되면서 편마암 등의 석재를 이용하게 되고, 다음의 청동기시대가 되면 석축, 석도 등의 소형 판상 석기 제작에 세일, 점판암 등의 석재가 사용되는 등 사용 석재의 종류는 점차 늘어난다.

대전분지 지역은 전체적으로 동일한 지질 환경에 놓여 있어 사용되는 석재는 거의 유사한데, 유적별로 개별 기종에 따라 선호되는 석재는 일정 정도 차이가 있다. 또한 청동기시대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1045193)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융합고고학과 교수

타제석기와 마제석기는 모두 동일한 석재를 사용한다는 점 역시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석기 석재 사용의 변화, 즉 다양한 석재의 사용, 동일한 석재로 타제석기와 마제석기 제작 등의 특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변 환경에 대한 지식, 석재에 대한 이해, 석기 제작 기술의 발전 등으로 유적 인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석재를 사용하여 원하는 기능과 용도에 맞는 형태의 석기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석기 석재, 대전분지

I. 머리말

선사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석재가 석기 제작에 사용되었다. 석재는 무작위로 채집하는 것이 아니라 선사시대 사람들의 오랜 경험으로 파악한 개별 석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성질, 채집과 석기 제작의 용이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구분되어 사용되었을 것이며, 그러한 특징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타제석기 석재와 마제석기 석재의 차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석기 제작 기법의 발전에 따라 시대별로 주로 사용되는 석재가 변한다고 이야기되지만, 실제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석재 사용 양상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구석기시대의 석기 석재는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로 대부분의 구석기시대 유적 발굴보고서에 석재에 대한 검토 등이 게재되어 있지만,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유적 출토 석기 석재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구체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이기성, 2023).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본고에서는 대전분지 지역을 대상으로 구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까지의 유적 출토 석기 석재를 검토하여, 석재 사용의 특징과 시대별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전분지 지역은 2000년대 이후 도심 외곽부의 개발로 인해 많은 수의 유적이 밀집되어 조사되었으며, 동일한 지질 환경을 가지고 있어 석재 환경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지역으로, 통시적인 분석에 적합한 지역이다.

II. 석재 사용의 변화

흔히 선사시대의 석기를 제작하는데 있어 원재료인 석재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선택된다고 이해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타제석기와 마제석기의 석재로, 타제석기는 타격으로 원하는 기능의 도구를 만드는 제작 기법 상, 박리면에 예리한 날이 만들어지는 유리질의

석재, 예를 들어 흑요석과 같은 것이 선호되며, 마제석기는 완성된 석기의 형태와 기능에 따라 다양한 석재가 사용된다(이기성, 2006, 35쪽). 예를 들어 석촉, 석검, 반월형석도, 석착이나 대팻날 등의 소형 편인석부류와 같이 상대적으로 얇은 두께를 가진 석기의 경우 판상으로 잘 쪼개지는 점판암이나 편암 등이 사용되고, 두꺼운 신부에 단단한 날을 가진 별채용 합인석부 등은 안산암, 섬록암 등이 주로 이용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타제석기를 주로 사용하는 구석기시대, 타제석기와 마제석기가 병용되는 신석기시대, 마제석기가 주로 사용되는 청동기시대에는 주로 사용되는 석재가 달랐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석재 사용 양상의 변화는 단순히 물성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석기 제작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석재에 대한 이해, 주변 지역의 석재 환경에 대한 지식 등이 모두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선사시대의 석재 사용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석재 연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구석기시대와는 달리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연구에서 석기 석재가 그리 활발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와 신석기시대 석기의 석재 사용에 대한 연구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개별 유적의 석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김주용 외, 2005 ; 조남철, 2005 ; 조미순 외, 2013 등), 청동기시대의 경우, 특정 석재를 대상으로 유통의 가능성 등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황창한, 2010 ; 2011 등) 연구자 층이 넓다고 할 수는 없다. 선사시대 석재 연구가 석기의 형식 분류, 기종 조성 등과 달리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기존에 여러 번 지적되었듯이 석재 연구의 기초가 되는 석재 동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손준호, 2017, 137쪽 ; 이기성, 2006, 34쪽 ; 황창한, 2019, 16쪽). 최근에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석재 환경 조사를 실시하는 등(이기성·성민주, 2022)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아직 선사시대 고고학에 석재 연구의 방법론이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동일한 석재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까지의 석기 석재 사용 양상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의 분석 대상 지역인 대전은 지형상 분지를 이루고 있으며, 분지 전체에 걸쳐 동일한 복운모화강암의 지질 환경을 이루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구도심 외곽지역의 개발 사업에 의해 상대적으로 한정된 지역에서 다양한 시대의 유적이 집중적으로 조사되었기에, 여러 시대의 석재 사용 양상을 비교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발굴 보고서에 기재된 석재 동정 결과로 서로 다른 유적을 비교하는 것에는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동정되는 결과(이기성, 2023, 11쪽)’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으나 대전분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수의 유적을 동일한 기관에서 발굴 조사하였기에 석재 동정의 일관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다음에서 살펴보겠지만 대전분지의 석재 환경은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석재 동정 결과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대전지역의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의 석기 석재 사용의 변화 양상을 유적별, 지역별로 구분해 사용 석재 종류의 증가, 타제석기와 마제석기의 석재, 석재의

채집 가능 여부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본다. 구석기시대의 타제석기와 신석기시대의 타제석기는 동일한 타제석기라고 하여도 사용되는 석재가 전혀 다르며, 또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타제석기와 마제석기 석재가 반드시 구분되어 사용된 것은 아니다. 어떠한 석재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그러한 석재는 어떻게 입수되었는지를 통시적으로 살펴본다.

Ⅲ. 대전분지 선사시대 유적 현황

대전 지역은 차령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위치하며, 중·저산성 산지로 둘러싸인 사각형 모양의 분지로, 분지 내에는 갑천과 그 주요 지류인 유등천, 대전천, 유성천, 진잠천, 관평천 등이 흐르고 있다. 하천들 주위에는 비교적 넓은 저습지가 발달해 있으며, 이러한 저습지를 포함한 하곡들 사이에는 낮은 구릉이 펼쳐져 있다(기근도·이민호, 2002, 229쪽 ; 대전시사편찬회, 1992, 96쪽). 대전 지역에서 조사된 선사시대 유적의 대부분은 이러한 하천에서 수 백 m이내에 위치한 낮은 구릉의 정상부 또는 완사면에서 확인되었다(그림 1).

지질 환경을 살펴보면 대전분지는 대부분 화강암이며, 동쪽의 산악지역은 주로 변성암류가 많이 분포되고 있고, 서쪽과 남쪽 산지는 편암, 천매암, 반암류 등이 밀집 분포되어 있다(그림 2). 대전 분지 내에서 조사된 대부분의 유적은 지표면의 지질 분석 결과 복운모화강암상에 분포하고 있어, 대전 지역의 선사시대 유적들은 대부분 유사한 지형과 지질 환경에 입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박지훈·장동호 외, 2012, 44쪽)(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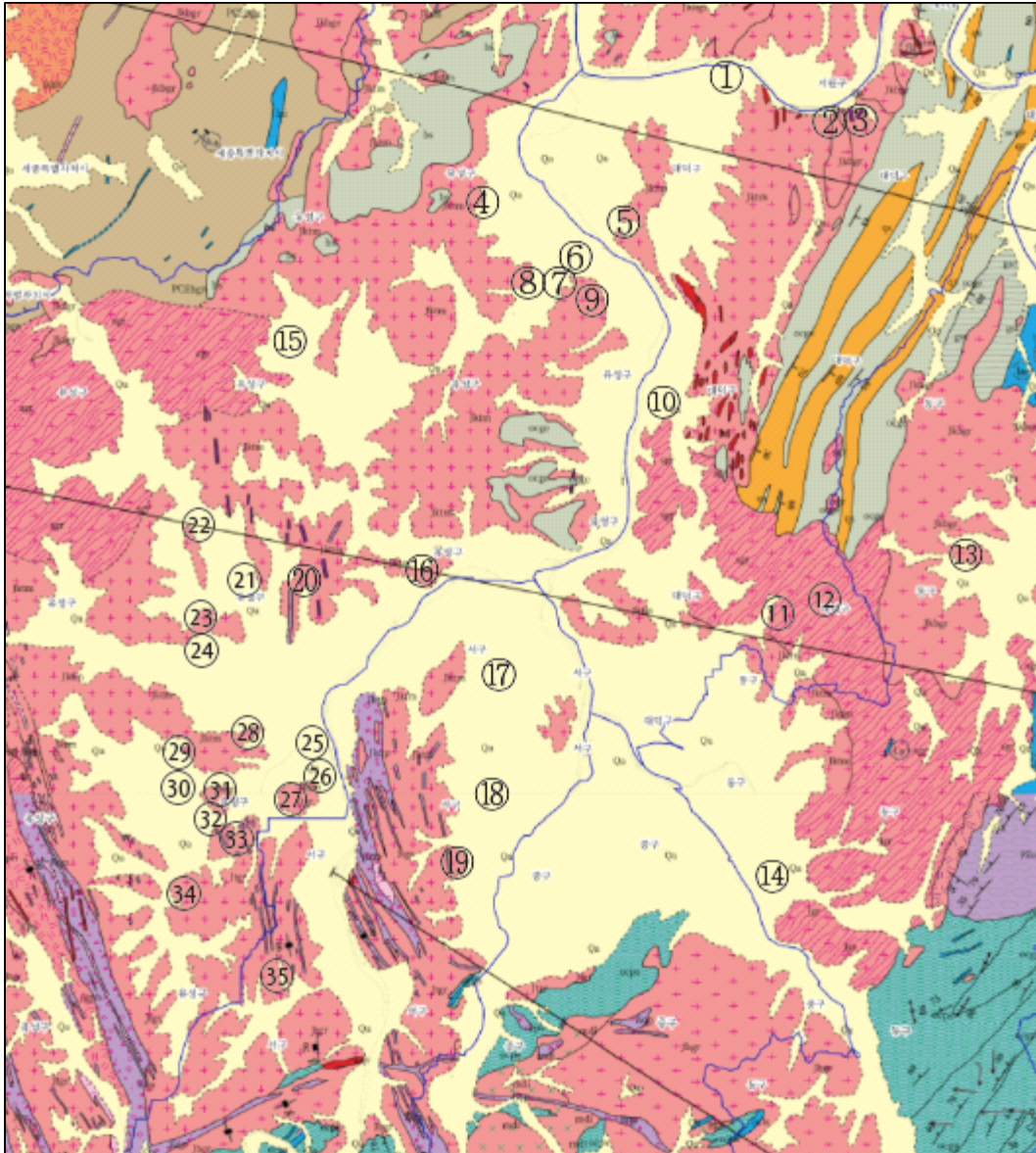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조사로 선사시대 유적이 밀집되어 확인되는 곳은 크게 대전분지 중심부, 북부, 서부, 서남부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유적들은 갑천 또는 갑천의 지류인 유성천, 반석천 등의 하천에서 가까운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유적들은 모두 해당 지역의 개발 과정에서 조사된 것으로, 현재의 유적 분포 양상이 대전지역 선사시대 유적 분포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대전분지 중심부는 갑천에 의해 형성된 충적대지와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둔산유적과 구성동유적 등이 대표적이다. 북부의 경우, 갑천과 지류인 관평천에 면한 지역으로 구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까지의 다양한 시대의 유적이 확인되었는데, 상서동유적, 용산동 구석기유적, 용산·탑립동유적, 관평동유적, 용산동유적 등이 있다. 서부는 유성천과 반석천에 인접한 구릉지대로 노은동유적(월드컵경기장 건립지역, 택지개발지구), 장대동 황촌유적, 죽동유적, 궁동유적 등이 조사되었다. 서남부는 갑천과 지류인 진잠천에 인접한 지역으로 원신흥동 신흥들유적, 원신흥동유적, 원신흥동 덜레기유적, 복용동유적, 복용동Ⅱ유적, 복용동 새터말유적, 용계동유적과 이들 유적 밀집 지역에서 조금 떨어져 대정동유적 등이 조사되었다. 이들 대전지역의 선사시대 유적에 대해서는 구석기시대(서대원, 2010 ; 성춘택 2008 ; 유용욱, 2015 등), 신석기시대(구자진, 2009 ; 정성희, 2017 등), 청동기시대(이형원, 2016 등) 등 각 시대별



[그림 1] 대전 지역 선사시대 유적 분포

- (①신탄진동유적(구), ②용호동구석기유적(구), ③용호동39-5번지유적(구), ④구죽동유적(구), ⑤상서동유적(신·청), ⑥용산동 구석기유적(구), ⑦용산동유적(청), ⑧관평동유적(신·청), ⑨용산·탑림동유적(청), ⑩신대동유적(구, 청), ⑪송촌동유적(신), ⑫비래동유적(청), ⑬추동(하추·성미)유적(구), ⑭가오동유적(청), ⑮자운동·추목동유적(청), ⑯구성동유적(청), ⑰둔산유적(구·신·청), ⑱괴정고등학교신축부지유적(청), ⑲괴정동유적(청), ⑳궁동유적(청), ㉑죽동유적(청), ㉒노은동유적(택지개발지구, 청), ㉓노은동유적(월드컵경기장 건립지역, 구·신·청), ㉔장대동 황촌유적(구), ㉕원신흥동 신흥들유적(청), ㉖원신흥동유적(청), ㉗원신흥동 덩레기유적(청), ㉘상대동 원골유적(청), ㉙복용동유적, 복용동 II 유적(청), ㉚복용동 새터말유적(청), ㉛복용초등학교부지유적(청), ㉜복용동50번지유적(청), ㉝용계동유적(청), ㉞대정동유적(구·청), ㉟관저동유적(청))



[그림 2] 대전 지역 선사시대 유적 분포(유적 번호는 그림 1과 동일, ■ 흑운모화강암, ■ 복운모화강암, ▨ 편상 화강암, ■ 흑운모 편마암, 호상 편마암, ■ 규암, 편암, ■ 천매암질 편암, ■ 석영반암)

로 전체적인 현황이 정리되었으며, 선사에서 고대까지의 유적 입지에 대한 지리학·지질학적 검토도 이루어졌다(김정영, 2011 ; 박지훈·윤정아 외, 2012 ; 박지훈·장동호 외, 2012 등).

본고에서는 구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까지의 석재 사용 양상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기에, 가능한 하나의 유적에서 다른 시대의 문화층이나 유구가 확인된 유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된 유적 중, 두 시대 이상이 확인된 유적은 둔산유적과 대정동유적뿐으로, 분석 대상을 늘리기 위해 동일한 지질 환경에 속해있는 유적 밀집 지역 중 서로 다른 시대의 유적이 확인되는 지역으로 북부 지역과 서부 지역을 검토 대상으로 하였다.¹⁾ 이 지역의 유적들은 하천 주변에 직경 1~2km 범위로 밀집되어 있어 동일한 하천을 석재 채집 지점으로 이용했을 것이다. 각 유적 및 지역의 석재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대전분지 중앙부 : 둔산유적(충남대학교박물관, 1995, 표 1)

둔산유적은 서에서 북동으로 흐르는 갑천과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유등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발달한 넓은 충적 평야지의 해발 60m 정도의 낮은 구릉에 위치하며, 기반암은 화강암이다. 구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까지의 유구가 조사되었는데, 북쪽의 낮은 구릉에 신석기시대 수혈이 위치하고 있으며, 약 100m 남쪽의 구릉 정상부에 청동기시대 주거지,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동쪽 약 40m 떨어진 지점에서 구석기시대 문화층이 조사되었다. 각 시대별 석기 석재는 [표 1]과 같다.²⁾

1) 구석기시대

유적이 발견될 당시 이미 건설 공사로 인해 상당 부분이 훼손되어 있었으며, 발굴 조사 결과 몸돌 8점, 격지 15점, 망치돌 3점, 찌개 3점, 굽개 11점, 밀개 1점, 흙날 4점, 뚜르개 1점, 새기개 1점, 날부분 간석기 1점, 기타 24점 등 총 74점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보고서상 석재명이 정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석재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반암, 유문암, 편마암 등으로 석재 사용 양상을 명확히 알기는 어렵다.

2) 신석기시대

구릉 정상부와 사면부에서 총 15기의 수혈이 확인되었다. 이 수혈군에 대해서 보고자는 평균 면적이 5.4㎡로 일상적인 거주에는 너무 좁고 노지가 없다는 점, 깊이가 얕아 저장용 수혈로 생각할 수도 없다는 점, 배식용 또는 조리용의 중소형 토기만 출토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계절적으로 비교적 짧은 점유기간을 가진 간이 주거지로 보았지만(충남대학교박물관,

1) 이러한 이유로 특정시대의 유적만 확인되는 대전분지 북동부, 동부, 서남부의 일부 유적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이하 본고의 석기 석재 집성표 중 ‘기타’는 발굴 보고서에 불명석기, 석재, 박편, 미제품 등으로 보고되어 있는 기종을 알 수 없는 것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그리고 본고의 목적은 석기 기종 구성이 아닌 석재 사용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기에 석재를 알 수 없는 석기는 집성표에서 제외하였다. 그렇기에 석기 석재 집성표의 수치가 해당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 전체의 수치는 아니다. 다만 본고의 분석 대상 유적 출토 석기 중 석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소수이기에 전체 결과에 큰 차이는 없다.

1995, 287쪽), 그와는 달리 구릉 지역의 정상부와 사면에 열상으로 군집된 분포 양상으로 보아 수렵과 관련된 함정 유구일 가능성이 제시(구자진, 2012, 118쪽)되기도 하였다.

석재가 기재되어 있는 석기는 총 28점으로, 타제석부 13점, 타제찰절구류 12점, 갈돌 3점 등이 출토되었는데, 실제 수혈 내부에서 출토된 것은 갈돌 1점과 타제석부 2점뿐으로 나머지는 문화층 또는 지표에서 확인된 것이다. 석기 석재를 살펴보면 편암(24점, 85.7%)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타제석부와 찰절구 등은 대부분 편암으로 제작되었다.

3) 청동기시대

구릉 정상부에서 총 3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모두 평면형태 장방형에 위석식노지와 초석이 설치되어 있고 이중구연 단사선문 토기가 출토되는 ‘둔산식주거지(안재호 2000:53쪽)’이다. 석기의 출토량은 총 16점으로 많지는 않은데, 석재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신석기시대와 동일하게 편암(7점, 43.8%)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세일(5점, 31.3%)이 사용되었다. 사용 석재는 기종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석촉과 석검에는 세일이 사용되었으며, 편암은 석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종에서 사용되었다.

[표 3] 둔산유적 시대별 석기 석재

기종	반암	유문암	화강암	편암	석영	세일	편암	혼펠스	계
구석기시대	●	●		●					
신석기시대	타제석부			1			12		13
	찰절구						12		12
	갈돌			1	2				3
	계			1	3		24		28
청동기시대	석촉					2	1	1	4
	석검					1			1
	석도						1		1
	석창						1		1
	타제찰절구						2		2
	지석					2	1		3
	기타				1	1		1	4
계				1	1	5	7	2	16
비율 (%)	구석기시대	●	●		●				●
	신석기시대			3.6	10.7		85.7		100
	청동기시대				6.3	6.3	31.3	43.8	12.5

둔산유적의 석재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대전분지의 다른 구석기시대 유적들과는 달리 혼펠스제 석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신석기시대에 편암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 청동기시대에 들어와 세일이 새롭게 사용되기 시작하지만, 역시 대부분의 기

중에 신석기시대와 마찬가지로 편암이 사용된다는 점 등이다. 특히 편암은 신석기시대의 타제석부와 타제찰절구, 청동기시대의 타제찰절구 등의 타제석기뿐 아니라 청동기시대의 석촉, 석도, 석창 등의 마제석기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2. 대전분지 서남부 : 대정동유적(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2, 표 2)

대정동유적은 대전분지의 서남쪽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갑천, 북쪽으로는 갑천의 지류인 진잠천이 흐르고 있다. 대정동유적에서는 각각 독립구릉으로 이루어진 5개의 지구에서 후기 구석기~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수의 유구가 조사되었는데, 이 중 1지구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5기와 고인돌 3기, 석관묘 1기, 3-2지구에서 후기구석기시대 유물층이 확인되었다.

1) 구석기시대

대정동유적 3-2지구의 남쪽, 약 7m×25m의 범위에 집중되어 총 30점의 석기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25점의 석기에 석재가 기재되어 있는데, 혼펠스(21점, 84%)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약 10m의 거리를 두고 독립된 구릉을 이루는 1-1지구와 1-2지구에서 총 5기가 확인되었는데, 모두 타원형토광이 확인되는 송국리식 주거지이다. 유구에 비해 출토된 석기의 수는 많지 않은데, 석재로는 실트스톤(11점, 45.8%)과 사암(7점, 29.2%), 세일(5점, 20.8%)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실트스톤은 석도, 석촉, 지석 등 다양한 기종에 사용되고 있다.

[표 4] 대정동유적 시대별 석기 석재

기종		석영	편암	사암	실트스톤	세일	혼펠스	계
구 석 기 시 대	굵개	2						2
	밀개						1	1
	흙날	1					1	2
	톱니날						1	1
	격지	1					17	18
	석핵						1	1
	계	4					21	25
청 동 기 시 대	석촉				1	1		2
	석도				5			5
	편인석부		1			1		2
	갈돌			1				1
	지석			4	2			6

기종		석영	편마암	사암	실트스톤	세일	혼펠스	계
	기타			2	3	3		8
	계		1	7	11	5		24
비율 (%)	구석기시대	16.0					84.0	100
	청동기시대		4.2	29.2	45.8	20.8		100

대정동유적의 구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석기 석재는 중복되지 않으며, 구석기시대의 경우 대전분지의 다른 구석기시대 유적과 유사하게 혼펠스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청동기시대의 석기 석재는 실트스톤이 여러 기종에 사용되지만, 그 외 석축, 석도 등의 판상 석기에는 세일, 지식에는 사암이 사용되는 등 기종에 따른 석재 사용의 차이가 뚜렷하다.

3. 대전분지 북부[표 3]

대전분지의 북쪽에 위치한 관평동, 용산동, 탑립동 일원은 대덕테크노밸리 개발 사업으로 많은 수의 유적이 조사되었다. 이 지역은 지형상 갑천 주변의 충적평야지대로 개발 이전에는 농경지가 넓게 펼쳐져 있던 곳이다. 남서쪽으로는 해발 100m 내외의 산지가 펼쳐져 있는데, 산지가 끝나는 낮은 구릉의 정상부와 사면에 유적이 입지하고 있다. 갑천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1km 정도 떨어져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유구가 함께 발견된 상서동유적이 위치하고 있으며, 갑천과 관평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남쪽으로 펼쳐진 충적대지와 낮은 구릉에서 용산동구석기유적, 용산동유적, 용산탑립동유적, 관평동유적이 확인되었다. 이 유적들은 갑천을 중심으로 대략 직경 2km의 범위 내에 밀집되어 있다.

이중 구석기시대 문화층은 용산동구석기유적, 신석기시대 유구는 상서동유적과 관평동유적에서, 청동기시대 유구는 상서동유적, 용산탑립동유적, 관평동유적, 용산동유적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신석기시대 유구에서 석기는 출토되지 않아 석재 사용 양상을 확인할 수는 없다.

1) 용산동 구석기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07)

남동에서 북서로 흐르는 갑천과 남서에서 북동으로 흐르는 관평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형성된 충적대지에 위치한 유적이다. I 지구에서 구석기시대 문화층이 확인되어 총 2228점의 석기가 출토되었으며, III 지구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가 대부분 유실된 채로 확인되었다. 구석기 시대의 석기 2228점 중 석재가 기술되어 있지 않거나 1, 2점씩만 발견되어 기타로 분류된 석기를 제외한 석기 2205점의 석재는 석영(1118점, 50.7%)과 혼펠스(1077점, 48.8%)가 절반 정도씩을 차지하고 있다. 용산동 구석기유적은 석핵이 그다지 많지 않고, 2차 산물인 박편이나 부스러기 그리고 최종 도구 석기인 스페르르개와 굽개류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 때문에 석기 제작 장소보다는 석기 사용 및 폐기 장소의 성격이 더 강한 곳(유용욱, 2015, 22쪽) 또는 사냥용 베이스캠프(김환일, 2006, 16쪽)로 보고 있다

2) 상서동유적(충남대학교박물관, 2006a)

해발 65m의 낮은 구릉 정상부에서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 1기, 중기 주거지 7기와 함께 구릉 하단부에서 신석기시대 고상구조물과 관련된 주공, 고려·조선시대 민묘 18기가 조사되었다. 신석기시대 고상구조물과 관련된 주공에서는 즐문토기 구연부편과 동체부편만 출토되고 석기는 출토되지 않았다.

(1) 청동기시대

해발 65m의 낮은 구릉정상부와 남사면에서 총 8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며, 석재가 기술되어 있는 석기는 총 82점이다. 편암(26점, 31.7%), 점판암(20점, 24.4%), 세일(18점, 22.0%)의 순으로 석재가 사용되었는데, 세일은 석축과 석도 등의 판상석기에, 점판암은 석축과 편인석부류에 주로 사용되었다. 지석은 대부분 편암제로, 석기 기종에 따른 석재 선택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인다.

3) 용산·탑립동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갑천과 관평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남쪽에 펼쳐진 충적대지에 있는 해발 50m 내외의 낮은 구릉에 위치한 유적으로, 2, 4, 5, 6지구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23기, 수혈 5기, 석관묘 1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가락동식주거지 14기, 중기주거지 8기, 시기 불명 주거지 1기로 전기 주거지와 중기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다. 석재가 확인되는 석기는 총 85점으로, 석축, 석검, 석도, 합인석부, 편인석부류 등 대부분의 석기가 편암(54점, 63.5%)으로 제작되었다. 지석은 사암제(21점, 24.7%)가 대다수로, 세일이나 점판암으로 판상석기가 제작되고 지석은 편암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서동유적과는 전혀 다른 석재 사용 양상을 보여준다.

4) 관평동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02)

남서에서 북동으로 흘러 갑천과 합류하는 관평천의 북쪽에 위치한 유적으로, 낮은 구릉 정상부와 사면에서 신석기시대 주거지와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신석기시대 유구로는 I 지구 1호 주거지와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신석기시대로 추정되는 II 지구 1호 주거지의 두 기가 확인되었으나 석기가 출토되지 않아 석재 사용 양상을 확인할 수는 없다. 청동기시대 유구로는 I 지구에서 주거지 1기, II 지구에서 주거지 12기 등 총 13기가 조사되었는데, 송국리식 주거지 2기 외에는 전부 가락동식 주거지이다. 용산·탑립동유적과 유사하게 석축, 석검, 석도, 합인석부 등 대부분의 기종에 편암(17점, 45.9%)이 사용되었으며, 지석은 사암제(4점, 10.8%)이다. 그 외 세일제 석축도 1점 확인된다.

5) 용산동유적(충남대학교박물관, 2002)

관평천의 남쪽에 면해 있는 낮은 구릉의 정상부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가 확인되었다.

1호주거지는 가락동식 주거지이며 2호 주거지는 유실이 심해 정확한 양상을 알 수 없는데, 1호 주거지에서만 총 8점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석촉은 1점만 출토되었는데 세일이 사용되었으며 그 외 합인석부, 타제석부, 지석 등은 편마암제(6점, 75%)이다. 세일제 석촉이 확인되는 점은 용산·탑립동유적, 관평동유적과 동일하지만 다른 유적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편마암이 여러 기종에 사용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5] 대전분지 북부 시대별 유적별 석기 석재

유적 및 기종		안산암	반암	섬록암	화강암	편마암	석영	응회암	초트	역암	사암	이암	세일	점판암	천매암	편암	훈펠스	규암	계
용산동구석기유적	슴베찌르개						1										37		38
	굽개						3										10		13
	밀개						3										2		5
	뜨르개						1												1
	흙날						3										1		4
	툼니날						2												2
	새기개																1		1
	찍개						1												1
	여러면석기						1												1
	복합석기						1										1		2
	몸돌						102	3									40		145
	격지						65	2									473		540
	돌날																233		233
	돌조각						826	4									275		1105
자갈돌						109	1									4		114	
계						1118	10									1077		2205	
상서동유적	석촉												5	6					11
	석도												2						2
	편인석부													1					1
	환상석부													1					1
	갈돌									1									1
	갈판									1							7		8
	석봉															1			1
	공이					1					1								2
	지석																18		18
	기타		2			1	1						11	12		7		3	37
계		2			2	1			1	2		18	20		26		10	82	
용산탑립동유적	석촉															10			10
	석검															4			4
	석도															4			4
	석부															1	1		2
	유구석부									1									1
	편인석부															2			2
	방추차															5			5
	어망추															2			2
	갈판														2				2
	망치					1													1
	지석										20					4			24
불명			1								1				26			28	
계			1		1					21	1			6	54		1	85	

유적 및 기종		안산암	반암	섬록암	화강암	편마암	석영	이회암	체트	염암	사암	이암	세일	점판암	천매암	편암	훈펠스	규암	계
관평동유적	석촉											1			4				5
	석검												1		2				3
	석도														2				2
	석부	1													4				5
	편인석부												1						1
	방추차													1					1
	갈돌										1								1
	갈판										1			3					4
	지석										2								2
기타	3					1		2						2	5			13	
계	4					1		2		4		1	2	6	17			37	
용산동유적	석촉											1							1
	석부					2													2
	타제석부				1														1
	갈돌			1															1
	지석				1														1
	기타				2														2
	계			1	6							1							8

유적		안산암	반암	섬록암	화강암	편마암	석영	이회암	체트	염암	사암	이암	세일	점판암	천매암	편암	훈펠스	규암	계
비율 (%)	용산동구석기유적						50.7	0.5									48.8		100
	상서동유적		2.4			2.4	1.2			1.2	2.4		22.0	24.4		31.7		12.2	100
	용산·탑립동유적			1.2		1.2					24.7	1.2			7.1	63.5		1.2	100
	관평동유적	10.8					2.7		5.4		10.8		2.7	5.4	16.2	45.9			100
	용산동유적				12.5	75.0							12.5						100

대전분지 북부 지역의 구석기시대 석기에는 석영과 훈펠스가 주로 사용되었지만 청동기시대 들어서면 석영과 훈펠스는 전혀 확인되지 않아 구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석기 석재 사용에 있어 명확한 차이가 확인된다. 청동기시대에 들어와서 주로 사용되는 석재는 세일, 점판암, 편암, 편마암으로 대부분의 유적에서 유사하지만, 기종에 따른 석재 사용은 유적별로 차이를 보인다. 갑천의 동쪽에 위치한 상서동유적의 경우, 석촉, 석도, 편인석부 등에는 세일과 점판암 등이 사용되고 편암은 주로 지석에 사용되는 반면, 갑천의 서쪽에 위치한 용산·탑립동유적과 관평동유적은 석촉, 석도 등의 판상 석기뿐 아니라 석부류에도 편암이 사용되며 지석은 사암제가 대부분이다. 또한 용산·탑립동유적과 관평동유적에 인접해 있는 용산동유적에서는 석부류에 편마암이 사용되어, 동일한 지질 환경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적에 따라 석재 사용 양상이 차이를 보이는 점은 흥미롭다.

4. 대전분지 서부 표 4

대전분지 서부 지역 일원은 2000년대 이후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해 다수의 유적이 조사되었다. 이 지역에는 반석천이 북서에서 남동으로, 유성천이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으며, 하천 주변의 충적대지와 해발 60m 내외의 낮은 구릉에서 다수의 유적이 확인되었다. 특히 노은동유적(월드컵경기장 건립지역)은 구석기시대에서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의 유구가 모두 확인된 드문 사례로, 이 유적에 바로 연접하여 구석기시대 문화층이 확인된 장대동 황촌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죽동유적은 노은동유적을 기점으로 북동쪽 약 800m 정도 떨어져 반석천의 서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궁동유적은 노은동유적을 기점으로 동쪽 1.3km 정도 떨어진 구릉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 유적들은 모두 반석천을 경계로 하여 대략 직경 2km 정도의 범위에 밀집되어 있다.³⁾

1) 노은동유적(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2003)

노은동유적의 동쪽으로 약 600m 정도 떨어져 반석천이, 남쪽으로는 약 700m 정도의 거리에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유성천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사이의 해발 60~70m 정도의 낮은 구릉지대의 정상부와 사면에서 유구가 확인되었다.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까지 전 시대에 걸친 유구가 조사되었지만, 신석기시대의 유구는 수혈 1기뿐으로 석기는 출토되지 않아 석재 사용 양상을 파악할 수는 없다.

(1) 구석기시대

A지역에서 16점, B지역에서 391점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A-1지구에서는 몸돌 1점, 밀개 1점, 격지 2점, 조각 1점, A-3지구에서는 찍개 1점(지표수습), A-2-1 구덩이에서는 3개의 유물층에서 구석기시대의 석기가 수습되었다. 개별 석기 전부에 대해 석재가 기술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출토된 석기의 석재는 대부분 석영이며, 그 밖에 응회암이나 수정 또는 혼펠스 등이 있으나 그 수는 적은 편이다. B-1지점에서는 378점, B-2지구에서 12점, B-4지구에서 찍개 1점이 출토되었는데, B-1지구의 석기 집중분포구역에서 376점이 출토되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석기 집중분포구역의 378점 중 석재가 기술되어 있지 않거나 소량만 출토되는 기타 석재를 제외한 351점의 석기 석재는 혼펠스와 석영으로 혼펠스가 74.6%(262점)으로 가장 많고 석영은 25.4%(89점)를 차지한다.

3) 이 외에 노은동유적(월드컵경기장 건립지역)유적에서 북쪽으로 약 800m 거리에 노은동유적(택지개발지구)가 조사되었다. 노은동유적(택지개발지구)에서는 총 13기의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확인되었는데, B구역 중앙구역에서 5기, B구역 남쪽구역에서 5기, B구역 북쪽구역에서 3기 등이다(충남대학교박물관, 2004). 그러나 유물에 대한 기술이 소략하여 석재 사용 양상을 파악할 수는 없기에 본고에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 유구로는 A-1지구에서 주거지 2기, 토광묘 1기, 수혈 9기, A-2지구에서 주거지 2기, A-4지구에서 수혈 2기, B-1지구에서 수혈 2기가 확인되었다. 완전한 형태를 알 수 있는 주거지는 A-1지구 1호 주거지뿐으로 평면형태 원형에 타원형수혈이 있는 송국리식 주거지이다. 유구의 수에 비해 출토된 석기는 6점뿐이다. 석기의 수가 매우 적어 석재 사용 양상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구석기시대 석기에 주로 사용되는 석영과 혼펠스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 외 각 기종별로 1점씩뿐이기는 하지만 석촉에 점판암, 유구석부는 천매암, 석착은 섬록암과 편암, 지석은 편암을 사용하였다.

2) 장대동 황촌유적(가경고고학연구소, 2022)

장대동 황촌유적은 노은동 월드컵부지 유적의 바로 남쪽에 이어진 유적으로, 낮은 구릉지대에서 구석기시대 문화층을 비롯하여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유구로는 2-3지역에서 장방형의 수혈 1기가 확인되었는데, 유물은 무문토기 저부편 1점만이 확인되고 석기는 출토되지 않았다.

(1) 구석기시대

완만한 남동 사면부의 구석기 1, 2 지역과 북서 사면의 구석기 3-1, 3-2지역에서 4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으며, 총 1009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한 두점만 출토된 기타 석재를 제외한 985점의 석기 중, 1~3문화층에서는 석영(294점, 29.8%) 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지만, 1, 2문화층으로 올라올수록 혼펠스(607점, 61.6%)가 더 많은 수를 차지한다.

3) 죽동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14)

죽동유적은 지형상 저평한 구릉지에 위치한 유적으로 남서쪽으로 200m 정도 떨어져 반석천이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흐르고 있다. 청동기시대 유구는 구릉의 정상부와 사면에서 확인되었는데, I~III, VI 지점에서 장방형주거지와 원형주거지 등 21기의 주거지와 수혈유구 5기, 석곽묘 3기가 확인되었다. 유구의 수에 비해서는 적은 수인 38점의 석기가 출토되었는데, 점판암(14점, 36.8%)과 세일(12점, 31.6%)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세일과 점판암은 석촉, 석검, 석도 등의 판상 석기에 주로 사용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석촉에는 세일, 석도에는 점판암이 보다 선호되었다. 사암(6점, 15.8%)은 갈판과 지석에, 편암(3점, 7.9%)은 합인석부, 갈판, 지석에 사용되었다.

4) 궁동유적(충남대학교박물관, 2006b)

해발 80m 정도의 구릉 동사면에 유적이 입지하고 있는데, 이 구릉은 원래 약 500m 남쪽의 반석천과 유성천이 합류하는 지점까지 이어지는 지형이었다. 청동기시대 장방형 주거지 3

기와 원형주거지 10기, 석판묘 2기가 확인되었다. 총 73점의 석기가 출토되었는데 석축, 석검, 석도 등의 관상 석기에 세일(16점, 21.9%)과 점판암(19점, 26.0%)이 주로 사용되었다. 석축에는 세일, 석도는 점판암이 더욱 선호되었다는 점은 죽동유적과 동일하다. 또한 편암(10점, 13.7%)이 합인석부, 지석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역시 죽동유적과 동일하지만 석검, 석도 등도 편암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은 차이를 보인다. 죽동유적이나 노은동유적에 비해 더 다양한 종류의 석재를 이용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4] 대전분지 서부 시대별·유적별 석기 석재

유적 및 기종		유문암	반암	섬록암	화강암	편마암	석영	응회암	사암	세일	점판암	천매암	편암	혼펠스	각섬암	규암	계
노은동유적 구석기B-1지구							89							262			351
장대동 황촌유적	1문화층	29			14		226			5				470		5	749
	2문화층	1	1		4		35		1					137		4	183
	3문화층	1	2		1		33		7							8	52
	4문화층				1												1
	계	31	3		20		294		8	5				607		17	985
노은동유적 (청)	석축										1						1
	유구석부											1					1
	석착			1									1				2
	지석												1				1
	기타										1						1
	계			1							2	1	2				6
죽동유적 (청)	석축									8	4						12
	석검				1					1	1						3
	석도									1	5						6
	석부												1				1
	유구석부										1						1
	방추차										1						1
	갈판								3				1				4
	대석									1							1
	지석							1	3				1				5
	기타							1		1	2						4
계				1			2	6	12	14		3				38	
궁동유적 (청)	석축									8	2						10
	석검									1	2		1				4
	석도										2		1				3
	석부		2										1				3

유적 및 기종		유 편 암	반 암	섬 록 암	화 강 암	편 마 암	석 영	응 회 암	사 암	세 일	점 판 암	천 매 암	편 암	훈 펠 스	각 섬 암	규 암	계
	유구석부								1								1
	편인석부		1							1							2
	고석																0
	지석					1				1			2				4
	기타		6			12			1	5	13	1	5	1	1	1	46
	계		9			13			2	16	19	1	10	1	1	1	73
비 율 (%)	노은동유적 구석기						25.4							74.6			100
	장대동유적	3.1	0.3				29.8	2.0	0.8	0.5				61.6		1.7	100
	노은동유적(청)			16.7							33.3	16.7	33.3				100
	죽동유적				2.6			5.3	15.8	31.6	36.8		7.9				100
	궁동유적		12.3			17.8			2.7	21.9	26.0	1.4	13.7	1.4	1.4	1.4	100

구석기시대에 주로 사용되었던 석영과 훈펠스는 궁동유적의 2호 주거지 출토 박편 1점을 제외한다면 청동기시대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청동기시대에 들어와 죽동유적과 궁동유적 모두 석축, 석검, 석도 등의 판상석기에 세일과 점판암이 주로 사용되며, 그중에서도 석축에는 세일, 석도에는 점판암이 보다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 역시 공통된다. 또한 편암이 합인석부와 지석 등에 사용된다는 점 역시 동일하다. 이렇듯 석재 사용에 있어 죽동유적과 궁동유적은 거의 동일한데, 궁동유적에서는 석검과 석도 등에도 편암을 사용하고 죽동유적에 비해 더 많은 종류의 석재가 사용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IV. 대전분지 선사시대 석기 석재 사용의 변화와 특징

이상에서 대전 분지 지역의 지역별, 시대별 석재 사용을 살펴보았다. 신석기시대 유적이 상당수 조사되기는 하였지만, 둔산유적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혈 1, 2기에 불과하고 출토 유물 역시 토기편뿐⁴⁾으로 통시적인 석재 사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전 지역 선사시대 석기 석재 사용 양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대전지역을 포함한 호서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은 중기부터 등장하고 대체로 규모도 작고 석기도 소량만이 출토된다는 점은 이전부터 지적되었다(윤정국, 2011, 69쪽; 소상영, 2013, 107쪽).

1. 혼펠스의 사용과 석재 채집

대전지역 구석기시대 유적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석재는 석영과 혼펠스이다. 석재명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은 둔산유적을 제외하면 대전분지 서남부의 대정동유적, 북부의 용산동구석기유적, 서부의 노은동유적, 장대동 황촌유적 등 모든 유적에서 석영과 혼펠스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석영제 석기가 중심을 이루다가 점차 혼펠스가 같이 이용되기 시작하고 후기 구석기시대의 늦은 단계에는 혼펠스제 석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재 사용 양상의 변화를 보여준다(서대원, 2010, 34쪽). 혼펠스는 더 작은 석재에서 더 많은 격지를 떼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석기 제작 기술의 진보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가경고고학연구소, 2022, 419쪽). 이렇듯 구석기시대에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되던 혼펠스는 신석기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고, 청동기시대에 들어와서도 둔산유적 1호 주거지 출토 석촉과 불명석기, 궁동유적 2호 주거지 출토 소형 박편 정도로 극히 드물게만 사용되었다.

대전지역 구석기시대 석기에 사용되는 혼펠스에 대해서는 노은동유적에서 직선거리로 약 7km 이상 떨어진 갑천 상류 지역이 산지로 지목되고 있다. 대전 남부의 금산-옥천-양촌 지역 일대에 분포하는 옥천층군의 창리층 내에 열변질된 슬레이트, 천매암, 혼펠스 등이 분포하고 있는데, 노은동유적의 혼펠스를 이 지역에서 기원했을 것으로 보고 있거나(김주용 외, 2003, 448쪽), 석기 겉면의 풍화 정도의 녹의 상태 등을 볼 때 창리층의 노두에서 채집한 것이 아니라 노은동유적에서 동쪽으로 2.5-3km 떨어진 지점에 흐르는 갑천 유역에서 채집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한창균, 2004, 88쪽). 그러나 갑천 주변에서 혼펠스와 같은 석재가 집중적으로 채집 가능한 수준으로 분포하는 것은 아니며, 혼펠스와 유문암, 반암 등의 여타 세립질 석재가 구체적으로 동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석재 활용 방식과 구체적인 산지를 밝히기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유용욱, 2015, 19쪽).

7km 이상 떨어진 노두이든 또는 2.5-3km 정도 떨어진 갑천이든 구석기시대에는 혼펠스를 채집하여 적극적으로 석기 제작에 사용하였으나 신석기시대 이후에 혼펠스가 전혀 사용되지 않게 된 것은 석재 입수의 용이성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유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갑천변에서 쉽게 혼펠스를 채집할 수 있었다면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유적에서도 일정 정도 혼펠스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전분지의 청동기시대유적에서는 출토되는 혼펠스제 석기가 한, 두점에 불과하다는 것은 혼펠스가 일반적으로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석재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후기 구석기시대에 존재했던 혼펠스의 채집과 사용 방식은 신석기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 시대별 석재 사용의 차이

앞에서 보았듯이 대전분지의 구석기시대 유적 출토 석기의 석재는 석영과 혼펠스가 중심

을 이룬다. 이후 신석기시대가 되면 편마암과 편암이 중심으로 사용되며, 특히 타제석부와 타제찰절구 등 길이 10cm 내외의 판상의 타제석기는 편암으로 제작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지석은 편마암제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대상지역의 신석기시대 석기 출토 유적이 둔산유적뿐이며 출토 기종이 한정적이어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구석기시대와 비교해 사용되는 석재의 종류가 전혀 달라졌다는 것은 명확하다. 청동기시대에 들어서면 사용되는 석재의 종류는 급격히 증가한다. 신석기시대부터 사용되는 편암과 편마암에 이어 석축, 석도와 같은 소형 판상석기에 세일, 점판암, 천매암 등의 퇴적암 또는 퇴적암계 변성암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점을 보면 선사시대 석기 석재 사용에 있어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시점은 구석기시대에서 신석기시대로 이행되는 단계이다. 신석기시대에 들어와 타제석부로 대표되는 대형의 판상 석기가 제작·사용되면서 판상 형태로 가공하기 어려운 석영이나 대형의 석재를 얻기 어려운 혼펠스 등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판상으로 박리, 가공하기 쉬운 세일, 점판암, 천매암, 편암 등의 석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신석기시대 굴지구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제작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적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석재를 사용하게 된다는 점은 기존에도 지적되었다(윤정국, 2020, 17쪽).

석영, 혼펠스에서 세일, 점판암, 편암 등으로의 석재 변화는 타제와 마제라는 석기 제작 기술의 변화라기 보다는 소형의 석기에서 대형의 판상 석기로의 변화라는 석기 기종과 형태의 변화라는 요인이 더욱 컸을 것이다.

3. 지역별 석재 사용의 차이

구석기시대는 둔산유적을 제외하면 대전분지 전 지역에서 석영과 혼펠스가 사용되었다. 청동기시대 역시 대전분지 중앙부, 북부, 서부, 서남부 모든 지역에서 사용되는 석재는 유적별로 빈도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동일한다. 석축, 석도, 소형 편인석부 등 상대적으로 소형이며 판상의 형태를 가진 석기는 세일, 점판암, 천매암, 편암 등이 사용되었고 합인석부는 안산암, 반암 등이, 지석과 갈판 등은 화강암, 사암이 주된 석재이다. 이러한 양상은 대전분지 전 지역을 통해 동일하며, 이것은 대전분지 지역 전체가 유사한 지질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석재 사용 방식을 보여주지만,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 본고의 분석 대상 지역은 수계로 구분되는데, 유성천과 반석천의 사이에 중심으로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서부지역, 관평천과 갑천의 합류지점의 충적대지인 북부지역, 갑천유역이 중심부, 진잠천 주변의 충적대지인 서남부 등 각 지역은 각각 다른 수계의 생활권에 포함된다.

이 중 대전분지 중앙부에는 편암과 세일이 다수 차지하며 특히 석도, 석좌 등에 편암이 사

용되고 있다. 그에 비해 서부에는 판상 석기에 세일과 점판암이 주로 사용되고 편암은 함인 석부와 지식에 사용된다. 서남부지역은 실트스톤과 세일이 석축, 석도 등에 사용된다는 점은 서부와 유사하지만 편암은 확인되지 않고 지식과 갈돌 등에는 사암이 사용된다. 북부지역은 갑천 동쪽의 상서동유적과 서쪽의 용산·탑립동유적, 관평동유적과는 석재 사용 양상이 다르다. 상서동유적의 석축, 석도, 편인석부 등은 세일과 점판암이 주로 사용되고 편암은 지식에 사용된다. 용산·탑립동유적, 관평동유적에서는 그와 달리 편암이 대부분의 소형 판상 석기 기종에도 사용되며, 지식은 사암제이다. 이렇듯 사용하는 석재 종류 자체는 유사하지만 개별 석기 기종의 사용 석재는 유적별로 일정 정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예를 들면 석축의 경우 중앙부는 세일, 북부는 유적에 따라 갑천 동쪽은 세일, 갑천 서쪽은 편암, 서부는 세일 등 유사하지만, 석도의 경우 중앙부는 편암, 북부의 갑천 동쪽은 세일, 갑천 서쪽은 편암, 서부는 점판암, 서남부는 실트스톤 등 유적에 따라 선호되는 석재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수계에 따른 석재 입수의 용이성과 관련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대전분지 자체는 거의 동일한 석재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갑천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전 분지의 서북부에서 발원하는 유성천, 반석천, 관평천 등의 지류의 발원지 역시 대표 암상은 복운모화강암이다. 세일, 점판암 등의 퇴적암 또는 퇴적암계 변성암은 주로 대전 분지 남부, 갑천의 상류에 분포하고 있어, 대전분지 내 갑천변에서 석재를 채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⁵⁾

이렇듯 갑천변에서 채집한 석재는 개별 유적의 선호에 따라 그 사용 방식이 달랐다고 볼 수 있다.

4.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타제석기와 마제석기 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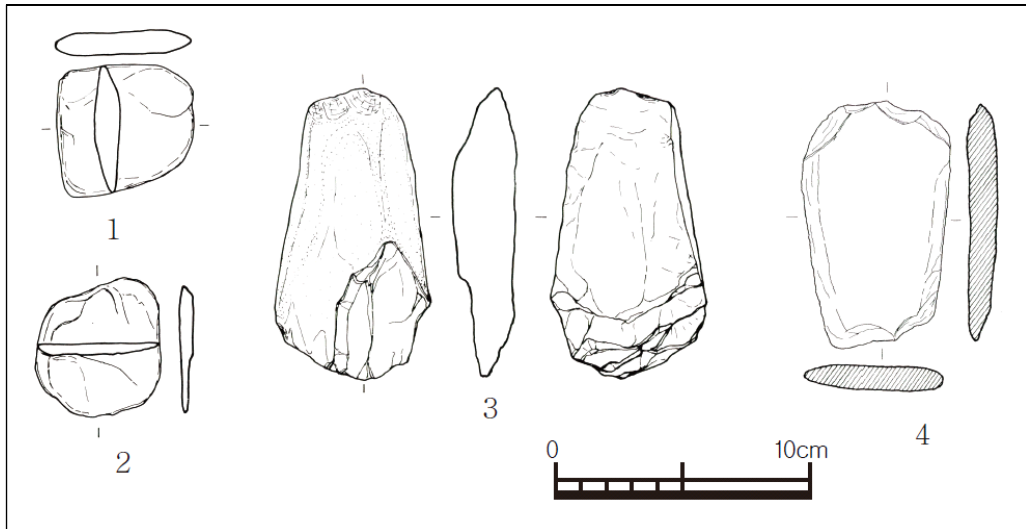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타제석기와 마제석기는 석재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암석의 물성에 따라 타제석기에 적합한 석재, 마제석기에 적합한 석재로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의 타제석기는 동일한 타제기법으로

5) 이러한 점을 확인하기 위해 본고의 분석 대상 유적에 인접한 유성천, 반석천, 진잠천, 관평천과 갑천의 합류지점 등의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점이 하천정비공사로 인해 원래 하천에 분포하고 있던 석재를 채집할 수 없었다.



제작된 석기라도 전혀 다른 석재를 사용하는데, 둔산동유적의 신석기시대 타제석부와 타제칼질구는 구석기시대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편마암으로 제작된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단단하면서 판상의 형태를 제작할 수 있는 석재로 편마암을 선택한 것이며, 이러한 석기 석재의 급격한 변화는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의 큰 차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신석기시대뿐 아니라 청동기시대에도 타제석기는 사용된다(이기성, 2015). 대전지역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박편을 제외하고 기종을 확인할 수 있는 타제석기는 둔산유적 1호 주거지 출토 찰절구 2점과 3호주거지 출토 타제석부, 용산동유적 1호 주거지 출토 타제석부뿐이다(그림 3). 석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둔산유적의 타제석부를 제외하고 둔산유적 찰절구 2점은 모두 편암인데, 둔산유적의 석촉, 석도, 석착 등 대부분의 마제석기 역시 편암으로 만들어졌다. 용산동유적 출토 타제석부의 석재는 편마암인데, 함인석부와 지석 모두에 편마암이 사용되고 있어 타제석기와 마제석기에 동일한 석재가 사용된다는 점은 공통된다.



[그림 3] 대전분지 출토 청동기시대 타제석기(1~3:둔산유적, 4:용산동유적)

둔산유적 신석기시대 유구에서는 사용으로 자연스럽게 마연되는 갈돌을 제외하면 마제석기가 출토되지 않아, 타제석기와 마제석기의 석재 비교가 어렵기는 하지만, 청동기시대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둔산유적과 용산동유적의 사례를 보면 타제석기 제작에 사용되는 석재는 마제석기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즉 청동기시대에 들어오면 타제석기와 마제석기에 사용되는 석재의 구분은 없어지며, 이것은 그만큼 석재에 대한 이해와 석재 가공 기술이 발전하여 특정 석재를 기능과 용도에 맞게 타제 또는 마제 기법으로 석기를 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선사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석재가 석기 제작에 사용되었다. 석재는 무작위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석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성질, 채집의 용이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구분되어 사용되었을 것이며, 그러한 특징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타제석기의 석재와 마제석기의 석재 차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석기 제작 기법의 차이와 함께 시대에 따라 사용되는 석재가 변한다고 이해되지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석재 사용 양상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본고에서는 대전분지 지역을 대상으로 구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까지의 유적 출토 석기 석재를 검토하여, 석재 사용의 특징과 시대별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대전분지의 구석기시대에는 석영과 혼펠스가 주로 사용되지만, 신석기시대가 되면 혼펠스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대신 신석기시대에 들어와 타제석부와 타제찰절구같은 판상형 석기가 제작·사용되면서 편마암 등의 석재를 이용하게 되고, 다음의 청동기시대가 되면 석촉, 석도 등의 소형 판상 석기 제작에 세일, 점판암 등의 석재가 사용되는 등 사용 석재의 종류는 점차 늘어난다.

대전분지 지역은 전체적으로 동일한 지질 환경에 놓여 있어, 사용되는 석재는 거의 유사한데, 유적별로 개별 기종에 따라 선호되는 석재는 일정 정도 차이가 있다. 대전분지 내 수계별로 입수할 수 있는 석재의 종류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기에 유적별 석재 사용의 차이는 개별 유적의 선호도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청동기시대 타제석기와 마제석기는 모두 동일한 석재를 사용한다는 점 역시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석기 석재 사용의 변화, 즉 다양한 석재의 사용, 동일한 석재로 타제석기와 마제석기 제작 등의 특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변 환경에 대한 지식, 석재에 대한 이해, 석기 제작 기술의 발전 등으로 유적 인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석재를 사용하여 원하는 기능과 용도에 맞는 형태의 석기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투고일: 2024.05.29, 심사개시일: 2024.06.03, 게재확정일: 2024.06.10.]

【참고문헌】

- 가경고고학연구소, 2022, 『대전 장대동 향촌유적』.
-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2, 『대정동유적』.
- 구자진, 2009, 「대전 지역의 신석기문화」, 『고고와 민속』 12.
- 구자진, 2012, 「대전 둔산 신석기유적의 재검토」, 『한국신석기연구』 24.
- 김정영, 2011, 「GIS를 이용한 청동기시대 유구 배치에 관한 지형분석 - 대전지역의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대상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용·고상모·안승모·이영덕, 2005, 「진안 갈머리·좌포리유적, 군산 노래섬패총 출토 석재의 암종감정을 위한 박편관찰」, 『한국신석기연구』 9.
- 김주용·양동윤·고상모·한창균, 2003, 「구석기시대 석기의 암종 분석」, 『대전 노은동 유적 -대전 월드컵경기장 건립지역』.
- 김환일, 2006, 「대전 용산동 구석기유적출토 스페찌르개의 성격」, 『중앙고고연구』 2.
- 기근도·이민호, 2002, 「지형을 중심으로 한 대전 지역의 이해」,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2.
- 대전시사편찬회, 1992, 「제3장 대전의 자연환경」, 『대전시사 제1권』.
- 박지훈·윤정아·김성태·임수근·이예진, 2012, 「지리지형학적 관점에서 본 대전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 입지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
- 박지훈·장동호·김찬수, 2012, 「대전지역에 있어서 선사·고대 유적의 입지환경」, 『한국지형학회 지』 19-1.
- 서대원, 2010, 「대전지역의 구석기시대 유적 비교검토」, 『고고와 민속』 13.
- 성춘택, 2008, 「대전 충남 지방의 구석기 문화」, 『한국구석기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8.
- 소상영, 2013, 「한반도 중서부 지방 신석기시대 생계·주거 체계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준호, 2017, 「청동기시대 석기 관찰 및 기록 방법」, 『송실사학』 39.
- 유용욱, 2015, 「금강 유역 구석기유적의 형성 과정과 고인류 점거 과정 시론」, 『호서고고학』 33.
- 유용욱, 2018, 「충청지역 구석기유적의 다양성」, 『충청문화연구』 21.
- 윤정국, 2020, 「신석기시대 굴지구의 변천과 의미」, 『호남고고학보』 65.
- 윤정국, 2011, 「남부내륙지역 신석기시대 석기의 변천과 양상」, 『한국신석기연구』 22.
- 이기성, 2006, 「석기 석재의 선택적 사용과 유통」, 『호서고고학』 15.
- 이기성, 2015, 「무문토기시대 타제석기 시론」, 『호남고고학보』 49.
- 이기성, 2023, 「한국고고학의 석재 연구 현황과 문제점」, 『한국문화연구』 45.
- 이기성·성민주, 2022, 「부여 서북부지역 석재 환경조사」, 『한국청동기학보』 30.
- 이형원, 2016, 「청동기시대 갑천유역의 유적 분포양상과 그 의미」, 『고고학』 15-1.
- 정성희, 2017, 「금강수계 신석기시대 수혈주거지 일 연구」, 『동원학술논문집』 18.
- 조남철, 2005, 「한반도 남부 신석기 유적 흑요석의 특성화 연구 - 경남 통영(연대도, 육지도, 상

- 노대도), 부산시 동삼동 및 전남 여수 송도 패총, 『강원고고학보』 25.
- 조미순·박윤정·좌용주, 2013, 「고성 문암리유적 출토 석기의 원산지 추정」, 『한국신석기연구』 26.
- 중앙문화재연구원, 2002, 『대전 관평동유적』.
- 중앙문화재연구원, 2007, 『대전 용산동 구석기시대유적』.
-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대전 용산·탑립동유적』.
- 중앙문화재연구원, 2014, 『대전 죽동유적』.
- 충남대학교박물관, 1995, 『둔산』.
- 충남대학교박물관, 2002, 『용산동』.
- 충남대학교박물관, 2006a, 『대전 상서동유적』.
- 충남대학교박물관, 2006b, 『궁동』.
-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4, 『대전 노은동유적 발굴조사보고』.
-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2003, 『대전 노은동유적 -대전 월드컵경기장 건립지역』.
- 한창균, 2004, 「대전 노은동 구석기 유적의 석기 연구」, 『고문화』 64.
- 한창균·김근완·구자진, 2003, 「노은동유적에 대한 종합 고찰」, 『대전 노은동 유적 - 대전 월드컵 경기장 건립지역』.
- 황창한, 2010,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편마암류 석기의 산지 연구」, 『야외고고학』 9.
- 황창한, 2011, 「청동기시대 혼펠스제 마제석검의 산지 추정」, 『고고광장』 9.
- 황창한, 2019, 「청동기시대 석기 생산 체계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bstract】**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Prehistoric Stone Use**

Yi, Kisu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Heritage)

In prehistoric times, various types of stones were used to manufacture stoneware. Stone materials were probably differentiated and chosen based on various factors such as their physical properties and the ease of gathering, rather than being randomly selected. This point is most clearly shown in the difference found in stone materials used for chipped stone tools and polished stone tools. Different stone materials were used depending on the manufacturing techniques and also in different times; and not many diachronic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examine changes in the use of stone materials in a specific region.

In this study, I examined stone materials used in stoneware spanning from the Paleolithic Age to the Bronze Age, excavated in the basin area of Daejeon, South Korea,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in use of stone materials and their changes with time. In this area, quartz and hornfels were mostly used during the Paleolithic Age, but hornfels were no longer used by the Neolithic Age. Instead, in the Neolithic Age, gneiss was used as people made and used flat stoneware such as chipped stone axes and chipped stone cutters. By the Bronze Age, the variety of stone materials increased gradually, including shale and slate used to manufacture small and flat stoneware such as stone arrowheads and stone knives.

In general, the Daejeon basin area has a homogeneous geological environment, and mostly similar stone materials were used throughout the area, but preferred materials differed to an extent by historic sites, depending on the type of stoneware. Another characteristic is that same stone materials were used for chipped stone tools and polished stone tools during the Bronze Age.

The changes in stone materials used in stoneware, use of diverse stone materials, and use of same stone materials for chipped stone tools and polished stone tools suggest that people used stone materials that were easily found near the historic sites to manufacture stoneware suited to their desired functions and uses, drawing from their knowledge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understanding of stone

선사시대 석재 사용의 변화와 특징

materials, as well as the progress in stoneware manufacturing technique.

Keywords : Paleolithic Age, Neolithic Age, Bronze Age, stone materials, Daejeon basin